

본교, 예일대에 5천만불 손배소 제기
신정아 학력위조 확인에 대한 책임 묻어



한진수 경영부총장이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공개했다.

우리 대학은 영터러 학력확인으
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미국 예
일대를 상대로 5천만 달러(한화 약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수(회계학) 경영부총장은 지
난 26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열
린 기자회견을 통해 "예일대의 잘못
으로 학교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징벌적 피해보

상까지 함께 청구해 최소 5천만 달
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2008학년도 입
시지원율이 감소한 것은 물론 기부
금과 정부 지원금이 현저히 감소하
는 등 금전적 손해 또한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대학은 25일(현지시간 24
일) 미국의 10대 법률회사인 맥더
모트 법률 회사 (Mcdermott
Will&Emer)를 통해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그
날 오후 예일대 측에 이와 같은 사
실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예일대 측은 28일 "동국대
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에
대응할 것이지만 이번 사건이 소송

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서 한진수 부총장은 "미국은 배심
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 보상액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일
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문제이
기 때문에 승산 가능성이 있다"라
고 말했다.

예일대는 작년 우리학교로 보내
온 신정아씨의 학력 확인 팩스에
대해 "동국대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모두 위
조된 것"이라며 사실을 번복했다.
그러나 11월 29일, 12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
의 사과서한을 우리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100만인의 바람 ... 동국대 로스쿨 인가를 위한 천만불자 서명운동이 지난 27일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갖고 시작
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교 총장, 종호스님, 법타스님 등을 비롯해 직원,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2면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실시간 열람실 현황 확인시스템 도입

중앙도서관, 10일부터 영문홈페이지 등 사이트 개편

중앙도서관(관장=석원경·화
학)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
해 열람실좌석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수고를 덜
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람실좌석 이용현황은 중앙도
서관 홈페이지의 좌측의 메뉴 중
'열람실좌석 이용현황'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별관1열람실, 별관2
열람실, 만해관 열람실, 노트북 열
람실의 배치도를 통해 좌석 현황
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가 부족했던 참고정보
원(이용자서비스>참고정보원) 코
너의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불
교학 △사조연구 △인문과학 △사

회과학 분야의 학습에 연관된 참고
사이트 552건을 이번 학기에 참고
정보원을 통해 소개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지난 10일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도와주고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영문 홈페이
지는 중앙 도서관 홈페이지의 오
른쪽 상단의 'ENGLISH' 메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석원경 중앙도서관장은 "대학생
들에게 가장 가까워야 할 곳은 도
서관"이라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장학 수여식

총 4명 기초과학 전공 대학원생에 250만원씩 수여



금으로 운영되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과 대학원생 중에서 학업성
적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학
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박관호 교수 제자사랑장
학은 이번학기가 7회째로
수혜학생은 △김영웅(화학과 석사
과정 1학기) △정다래(수학과 석사
과정 1학기) △홍동환(물리학과 석
사과정 1학기) △이현지(생물학과
석사과정 1학기) 등 총 4명이며, 각
각 250만원씩 수여받았다.

2008년 1학기 '박관호 교수 제
자사랑 장학' 수여식이 지난 25일
이과대학강실에서 진행됐다.

이 장학은故 박관호(화학) 명예
교수가 우리학교 기초과학분야 연
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한 기

외신, 본교소송에 큰 관심

뉴욕타임즈, BBC 등 주요 뉴스로 보도

우리대학이 예일대에 대해 5천
만불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해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
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대학이 예일
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오는 26일 "잘못된 서신으
로 인한 예일대 피소(Lawsuit
Accuses Yale of False Statements)"
란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이 신정
아 사건과 관련, 예일대의 잘못된
학력 검증으로 인해 학교 명성이
추락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 국영 방송
BBC news는 "예일대가 신정아 씨
의 학력 검증에 있어 실수를 저질
렀고 그로 인해 동국대가 입은 피
해가 크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우
리대학의 법적 입장을 주요 뉴스

로 보도했다.

한편 예일대의 학내 뉴스메거진
인 예일 뉴스데일리는 이 소송에
대해 예일대의 대변인 탐 콘로이
가 보낸 이메일을 인용하며 "동국
대는 이 소송에 대해 후회할 것"이
라며 예일대의 책임보다 신 씨 개
인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강조
했다.

이와 같은 외신의 보도와 관련
해 해의 네티즌들과 예일대 학생
들은 "배상청구액이 너무 높다. 해
도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체면과 명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소송의 배상액이 그렇게 많은 것
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잇달리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총학생회, 또 다시 파행국면

선관위 구성 '적법성' 놓고 학교·학생 대립 '팽팽'

후보자 등록까지 마쳤던 제 40
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구
성의 적법성 논란으로 또다시 무
산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사지원본부(본부장=이명
천·화공생물공학)는 지난 26일
대자보와 이메일을 통해 △총대
위원회 중앙위원회보다 중선관
위를 먼저 구성한 점 △중선관위
구성회의에서 일부 단과대를 배
제한 점 △입후보 기간이 짧아
다른 후보가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선관위 구성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으니 불공정한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인 명부제목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호(사학4) 중선
관위장은 "학교 측은 학칙에 위
배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해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
장=라인호·생물4, 이하 비대
위)의 말만 믿을 뿐 우리의 의견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선거진행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개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은 중선관위 구성
을 둘러싸고 특정 단과대 대의원
장의 자격과 참석여부, 이결권 등
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말 총학
회 선거가 무산된 후 단과대 대의원
장을 중심으로 선관위 구성과 선
거일정 재개를 위해 3월초부터
논의를 벌여왔다. 각 단과대 대
의원장 및 선관위장은 이를 위해
중앙기구 선거를 관리·감독할
중선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
난 12일부터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문과대 대의원장 이성호 군
을 중선관위장으로 하는 중선관
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14일 대자보
를 통해 18일까지 후보자등록 마
감일, 다음달 1일부터 3일간 선
거를 진행할 것을 공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선관위 구성
에 불교대·이과대·법과대·경
영대·생과대·공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대자보를 통해
배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해도 비상대책위원회(위원
장=라인호·생물4, 이하 비대
위)의 말만 믿을 뿐 우리의 의견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선거진행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개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은 중선관위 구성
을 둘러싸고 특정 단과대 대의원
장의 자격과 참석여부, 이결권 등
을 둘러싼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 배제됐다"며 "중선관위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이번 선거에 동
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선관위는 18일 팔
정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칙 제 18장
제104조 1항에 근거에 구성됐
다"며 "중선관위장 선출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대의원
장들은 중선관위장 선출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을 이
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합법적으로 구성된 중선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총학
생회 비대위는 선거에 개입하겠
다는 의미"라며 이를 비난했다.
이날 중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총학생회장
후보로 현성은(국문4)·신동욱
(법학4)·총대의원장에는 구본
훈(국교4)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총학생회장 후보 현성은
·신동욱 조는 이같은 학교 측
결정에 지난 27일부터 중앙도서
관 앞에서 "학생자치기구 선거에
학교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선거가 무산될 경우 더욱 강력
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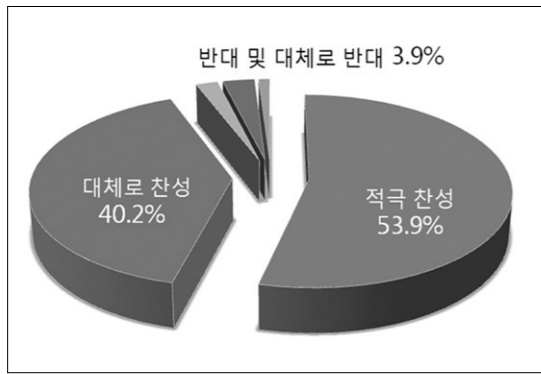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featuring a film strip graphic and the text '미안해... 내가 어제 필름이 끊겨서...' (Sorry... because the film ran out yesterday...).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ess and a small logo for '동대신문 기획광고'.

Advertisement titled '지면안내' (Table of Contents) listing various articles and their page numbers: 3면 학술 (Academic), 4면 기획 (Planning), 5면 문화기획 (Cultural Planning), 8면 문화 (Culture). It also includes a small section for '동대신문 기획광고'.

학생 94% 강의평가 공개 '찬성'

조사결과 평가횟수 확대·강좌별 평가 항목 추가



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 역시 40.2%를 차지했다. 이로써 94%가 넘는 대다수 학생이 강의 평가에 찬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수강 신청에 도움 △강의 질 향상 △교수들의 능력향상 및 강의에 대한 동기부여가 차례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94%의 찬성 응답에 반해 반대한다는 대답은 3.9%에 그쳤다. 반대의 이유로는 객관성 및 신빙성 우려가 43.2%, 평가기준 및 방법의 불분명이 15.9%, 학내동정의 이뤄지지 않음이 13.6%로 조사됐다. 이어 '강의평가를 어느 정도 신뢰 하는가'란 질문에서 학생들은 74.2%가 신뢰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이밖에 건의사항으로 △구체적 평가 결과 공개(Comment 공개) △평가기준 및 항목의 세분화 △강의평가의 홍보 및 객관화 등이 강의평가에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대학 최초로 이뤄진 강의평가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대 다수인 94%의 학생이 강의평가 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3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 중 53.9%가 강의평가 접수 공개

필 향상 △교수들의 능력향상 및 강의에 대한 동기부여가 차례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94%의 찬성 응답에 반해 반대한다는 대답은 3.9%에 그쳤다. 반대의 이유로는 객관성 및 신빙성 우려가 43.2%, 평가기준 및 방법의 불분명이 15.9%, 학내동정의 이뤄지지 않음이 13.6%로 조사됐다. 이어 '강의평가를 어느 정도 신

항목별로 기술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학기 초의 학생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월 말과 6월 중에 실시예정인 2,3차 강의평가는 기존 강의 평가에서 '이론 강좌'와 '실형·실습·실기 강좌'의 강좌별 구분평가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강좌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무팀은 무성의한 답변을 피하기 위해 작년 2학기 강의평가부터 5개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의평가 개선에 대해 정동윤(경제2)은 "기존 강의평가에서 보완돼야 했던 내용들이 바뀐 것 같다"며 "강의평가공개가 대학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대학의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윤 기자 gfd1226@dongguk.edu



등록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가 28일 열려 학생과 시민 7천명이 등록금에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만 원권 지폐 무늬의 학사모를 쓴 학생들의 시위장면. 사진제공=건대신문사

민원전용전화 3119 개설 통합관리로 효율성 기대

총괄지원팀 민원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직통전화 3119선이 신설됐다. 민원전용 전화의 내선 번호는 3119로 외부전화로는 2260-3119로 걸면 된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개통돼 민원 접수 받고 있다.

본래 총괄지원팀에서는 전기, 대관, 청소, 영상 음향 장비, 실험실 기자재 등의 민원을 각각의 담당직원이 접수 받아 관리한다. 이 때문에 민원을 접수 하는데 담당직원의 내선번호를 알지 못하면 여러 번 전화를 돌려받아야 했던 문제가 있었다. 유한림 총괄지원 팀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신고하고 조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 다음달 11일 북한산에서

제48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참가대상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며 오전 9시까지 국립 4·19묘지 대 광장에서 집결한다. 편의를 위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팀 구성은 학과, 동아리, 동문 등이 자유로이 구성된 4인 1조팀과 재학생 40명 이상, 지도교수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과단체팀으로 루마니아 총장단은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오영교 총장을 접견하고 협약체결과 교류사업과 관련된 실무 논의 후에 교내 투어를 했다.

단체팀 참가자들 중 4인 1조팀에서 총 10팀, 학과단체팀에서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등산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된다.



"공부는 잘 돼니?" ... 지난 28일 오영교 총장이 경영대학(학장=이병철·경영학) 학사운영실에서 일일 팀원으로 민원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민원을 알기 위해 동국권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학내구성원 소통기회 늘어난다 소통체계수립 학내 갈등 줄일 것으로 기대

CS경영팀(팀장=박서진)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부서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수립했다.

CS경영팀은 '학내 구성원 사이의 갈등은 학내 의사소통 활동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커뮤니케이션 수립 취지를 밝혔다. 이에 CS경영팀은 학내 모든 부서에 '조직별 커뮤니케이션 권장 활동'을 지침 했다. 이번 계획은 구성원 간의 학교 운영방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이고 상호 친밀감을 형성해 열린 조직 문화를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소통 시 소의된 조직이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활동내용을 공지해 상호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의 권장활동은 대상별로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분된다. 교수의 경우 총장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총장과 원로교수의 대화 △총장과 신입교수의 점심식사 △총장과 여교수의 점심식사 △학장과 학과주임교수 모임 △학장과 소속대학 전체교수 모임 등의

활동을 계획했다. 또 학생 커뮤니티인 체계로는 △총장과 학생간부의 점심식사 △총장과 일반학생과의 대화 같은 방안이 계획됐다. 이를 통해 소통이 부족하여 발생했던 학생과 학교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문·학부모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별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총 커밍데이 등이 준비 중에 있다.

직원 간, 부서 간의 소통도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직원 아침 릴레이 특강 △실·팀장 아침세미나 △총장과 신입직원의 점심식사 등의 계획이 수립됐다. 직원 아침 릴레이 특강은 지난 18일 오영교총장이 첫 강연자가 돼 대학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계획의 담당자인 CS경영팀 박서진 팀장은 "관장 사형인 만큼 교수와 총장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총장과 원로교수의 대화 △총장과 신입교수의 점심식사 △총장과 여교수의 점심식사 △학장과 학과주임교수 모임 △학장과 소속대학 전체교수 모임 등의

정동윤 기자 gfd1226@dongguk.edu

"교수님 점심식사 함께 해요" 경영대, 학업지도위한 교수-학생 간담회 정례화

경영대 학생들과 교수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각 교수의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생과의 간담회를 연다.

교수와 학생과의 간담회는 경영대 학사운영실이 교수 한 명당 네 명의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연계해 주는 것으로, 12시에서 1시 30분 까지 교수연구실에서 식사를 하며 진행된다. 이번 학기는 4.5월 두 달간 실시

될 예정이며 현재 경영대학 홈페이지에 각 교수의 일정이 게시돼 있어 댓글을 다는 순서대로 접수 받는다. 예약을 하고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한 학기동안 신청이 불가하다.

경영대 학사운영실 박훈선 과장은 "학업지도교수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교수와 학생의 만남이 쉽지 않아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바베쉬 대학과 우리대학 학술교류 협정



루마니아 바베쉬보요이(Babes-Bolyai)대학 총장단이 지난 26일 학술교류협정체결을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단은 안드레이 마가(Andrei Marga) 총장, 부처 간의 소통도 체계적으로 정립된다. △직원 아침 릴레이 특강 △실·팀장 아침세미나 △총장과 신입직원의 점심식사 등의 계획이 수립됐다. 직원 아침 릴레이 특강은 지난 18일 오영교총장이 첫 강연자가 돼 대학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계획의 담당자인 CS경영팀 박서진 팀장은 "관장 사형인 만큼 교수와 총장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총장과 원로교수의 대화 △총장과 신입교수의 점심식사 △총장과 여교수의 점심식사 △학장과 학과주임교수 모임 △학장과 소속대학 전체교수 모임 등의

컴퓨터공학과 동창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컴퓨터공학과 동창회(회장=유상동·컴공77졸)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컴퓨터공학과 동창회는 지난 2005년 후배사랑 실천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했다. 이후 매학기 학과 학생 3명을 선정해 학과기여도 등을 평가·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학기 장학생은 김민정(컴공4), 김운찬(컴공3), 안지연(컴공2)으로 각각 150만원씩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동약로에서

눈금 없는 자

총학생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내 곳곳에 걸린 학교 측의 답화문에 이어 단체 이메일 발송에 대해 또 다시 학생사회가 시끄럽다. 그 내용인 즉, 학교 측이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기에 선거의 제반지원 또한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답화문은 학생사회를 향한 '당부'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자치의 핵심인 총학생회장 선거를 두고 학교 측이 나선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명백히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드러내놓고 개입 하는 것 아니냐'며 많은 학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2006년 총학생회는 총대의 원장을 배제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거진행으로 학생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2007년 선거는 총대의원장의 독단적인 선거 진행으로 선거가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재까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작년 학생회비 감사와 관련해 전 총대의원장은 단순히 '감사자료 분실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감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임기를 마쳤다. 전 총대의원장은 이어 학칙에도 근거하지 않은 9명 찬성의 모바일선거로 야간강좌 학생 대표로서 당선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 같이 책임감 없는 학생대표의 태도와 회칙을 사이에 두고 학생 사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활동의 감독과 지도' 명목 하에 현 총선관위에 대해 '당부'를 아끼지 않는 학교 측이, 회칙에 준거한 학생대표들과 학생회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학생회비의 경우, 학생준칙 14조에 '학생회비는 학사지원본부장이 관리한다. 학생회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의 장이 소요경비를 신청하여 학사지원본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학교측의 답화문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이번 총선관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 뿐 아니라 학생회비 운영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오아나무 아래에서는 갇힌 고쳐쓰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로스쿨 유치 백만불자 서명운동 고불식 시작 전국사찰로 확대 대취위, 27일 결의 ... 인터넷 통한 전자서명도 가능

우리대학의 로스쿨 유치를 위한 2천만 불자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27일 동국대 로스쿨 대취위 원회(위원장=법타스님)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같은 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1차=국회의원선거 전인 4월 8일까지 △2차=불교행사가 집중된 5월 18일까지 △3차=로스쿨 선정대학을 최종결정하는 본인이 시집인 8월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 100만 불자에게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동국대 로스쿨 대취위는 25개의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과 리플렛,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이와 함께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운동도 벌인다.

이날 고불식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정각원장 종호스님, 위원장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과 리플렛,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이와 함께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운동도 벌인다. 고불식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정각원장 종호스님, 위원장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과 리플렛, 서명용지를 배포하고 이와 함께 우리대학 홈페이지 및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 운동도 벌인다.

한편, 우리대학은 로스쿨 탈락의 부당성과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오영교 총장 명의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한전부터

동국특선영화

○ ... 끝나지 않는 시리즈 영화. 그레 이건 SF야-스타워즈에피소드 시리즈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는데-랍보이젠 조금 지겹나?-다이하드4

초특급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연속, 동국대 총학생회가 왔어요.

나홀로 집에, 성룡 영화 명절 앙코르 방송도 아니고.

오고가는 공격 속에 항상 결론은 패 나누기.

이제는 지겹거나 혹은 편하거나.

대자보 소개팅

○ ... 교수는 교수를 알아본다 했던가?

학생기구는 학생기구를 알아봤다.

중앙선거, 이월예산 문제로 시골 시골한 동아.

중앙기구들에게 대화는 필요없다.

그저 하루가 멀다 하고 붙는 대자보만이 있을 뿐.

이러다 혹시 대자보 붙이다는 맞는 건 아닐지...

생각대로만 하면 되고?!

○ ... 생협 카드 만들면 usb도 주고

생협 카드 만들면 2500원 적립도 되고

생협 카드 만들면 서점 할인도 되고

생협 카드 만들면 매점 할인도 되고

생협 카드 만들었는데 아리수매점 할인은 안돼?!

"할인이 되는게 맞아? 이거 이렇게 결제 하는게 맞는 건가?"

나는 돈 들어 생협 카드 만들었는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뒷 문 몬스터

○ ... 초보 : '뽀덕' 소리가 난다. 모두가 쳐다보아 다시 앉고 만다.

중수 : 문 소리가 여전히 나지만 화장실에 가는 척 사라진다.

고수 :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다. 볼 일이 끝나면 '다크템플러'처럼 사라진다.

분좌 : 강의실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네' 한마디만이 문쪽에서 들려온다.

산뜻한 봄기는 마저 흐리는 이누군가 했더니.

뽀뽀스럽게 가방을 숨기며 나가던 이누군가 했더니.

지금까지 물 흐르다는 '미꾸라지' 진화 과정.

4·9 국회의원 선거 동문 및 교수 9명 출마

우리대학 동문 및 교수 9명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마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민주당=홍영표(철학97졸), 최재성(철교94졸), 한평석(정치외교88졸), 정병욱(정치외교77졸), 전재수(역교97졸) △한나라당=구상찬(체교80졸) 김태원(연극영화75졸) 이정현(정치외교85졸) 비례대표 22번 △자유선진당=박선영(법학) 비례대표 3번

제1회 동국가족상 제정 5명 이상 동문가족 대상

사업개발본부(본부장=곽노성·국제통상학)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자랑스런 동국가족상'의 수상대상자를 모집한다.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신설된 이 상의 신청대상자는 직계 3대 이상이거나 부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5명 이상의 동문가족이다. 5월 7일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총장과 총동창회장의 공동명의로 시상한다.

불설아미타경 반환을 계기로 알아보는 유출문화재의 환수방안

일시적 관심보다 장기적 조사 필요쟁두

근년 일본에서 도난당한 한국문화재들이 국내로 반입되었고 사건 경위가 밝혀지면서 이 문화재들의 소유권 문제가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었으나 '선의의 취득'을 적용하여 일본으로의 반환은 물론 강제 환수조차 어렵다는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원래 우리 것을 약탈한 것이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는데,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유출문화재 환수의 법적근거

유출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법규로는 국내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협약 등이 있다. 유네스코 협약은 반환 요청국이 선의의 매수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 문화재보호법은 도난 미술품의 경우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수사·처벌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

이는 미술품의 도난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사범은 일반 범죄와 달리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국제법적으로 절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동된 문화재는 소장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법규와 한·일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유출 문화재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조항만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인데, '선의취득'을 확대 적용하면 특히 불법취득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관련 유물인 점을 고려할 때 소중한 불교성보는 도굴꾼이나 절도범들의 손에서 남아날 게 없다. 문화재를 일반적 재물과

구분하지 않고 '선의의 취득'만을 적용하거나 '원래 우리 것'이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원 소장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앞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소재와 미술품의 가치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한국 연구자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곧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본 내 한국문화재의 발굴, 조사, 연구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것을 의미한다. 더 큰 걱정은, 명확하게 불법적으로 유출된 우리의 많은 문화재조차 찾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유출문화재 현황파악 어려워

일본에 있는 한국문화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재단 또는 개개 연구자의 성과물과 일본 자체의 공개 자료를 통하여 막연하게나마 상당량이라고 짐작할 뿐 실제 수량은 알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는 지금껏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반환 요구의 선결 조건인 재일 한국문화재의 반환 경로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딱한 실정이다.

재일 한국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는 현황 파악과 동시에 반환이 불법적이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재일 한국 문화재의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 및 공개는 순전히 소유자의 의지에 달려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 역시 일본의 비협조적인 정서로 볼 때 순전히 우리의 몫이나 현재 국내의 영세한 자료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일 한국문화재의 수송 경위와 불법성 여부는 단발적인 조사만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사례로 보아 끈질긴 자료 발굴과 장기간의 연구로서만 밝혀낼 수 있다.

현황 파악은 물론 수송 경위를 밝혀내는 일은 말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몫이다. 특히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연구자가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 한국미술을 전공하고 일본의 미술관·박물관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불설아미타경 환수의 의미

일본 고마자와대학(駒澤大) 도서관은 지난 2월 19일 '불설아미타경' 1책을 본교 도서관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하였다. 그 사유는, 근래 기증받은 도서 가운데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도서관 장서인(藏書印)이 찍힌 '불설아미타경'을 발견했고 인수경위는 불분명하지만 원 소유가 동국대학교로 판단되어 반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일 한국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한·일간의 견해차이가 상당하고 불법유출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염



최근 우리학교로 반환된 '불설아미타경'. 우리학교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도서관 장서로 국내에 남아있지 않는 희귀본이다.

두에 두고 볼 때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불설아미타경'은 17세기 초 해남 대둔사(대흥사)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국내에 남아있지 않은 희귀자료이다. 특히 책머리의 그림(변상도)은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의 도상을 적극 계승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문이 한문과 함께 언해가 포함되어 있어 임진왜란 직후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고마자와대학 관계자의 해안과 선심(善心)에 경의를 표하며, 예를 지키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본교 반환을 성사시킨 도서관 관계자의 노고도 치하하고 싶다.

정우택

동국대학교 박물관장



과학 Talk Talk



저 먼 곳에 있는 달이나 화성, 아니면 더 먼 곳에 있는 별에 우주선을 보내 탐사해보겠다는 인간의 욕망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 우주는 인간의 개척 대상이며 먼저 개척하는 자에게 새로운 보화를 제공할 신천지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갈 것이 틀림없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달은 우주 탐험의 첫 번째 대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이 가장 앞서 있었던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매달렸던 탐사 프로젝트였다. 구소련이 1959년에 Luna 1호를 달로 보낸 이후, 1966년에 Luna 9호가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으며, 1970년에 세계최초로 달 샘플을 채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우주 탐사에 있어 구소련에 한발 늦은 미국은 1959년에 Pioneer 4호를 달에 근접 비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계획

행시키는데 성공하고 이후 1966년에 Surveyor 1호가 달착륙에 성공한다. 1968년에는 Apollo 8호가 세계 최초 유인 달궤도 여행에 성공하고, 드디어 1969년에 Apollo 11호가 달에 착륙해 세계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탐사 경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다른 나라들은 1990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우주 탐사를 생각하게 된다. 일본은 1990년에 달탐사 계획도안을 보낸 이후에 2007년에 달궤도탐사에 성공하였으며 2010년경에 달탐사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2007년에 달탐사궤도선 Chang'E 1호를 발사하여 성공하고 역시 2010년경에 달탐사착륙선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 유럽연합이 달탐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0년에는 달탐사궤도선을 2025년에는 달탐사착륙선을 발사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달탐사를 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궤도도선 및 착륙선의 설계, 추진시스템의 설계, 지상관제시스템 구축, 발사체, 탑재체 및 탐사로버(rover)의 설계 및 제작 등이다.

10년이 조금 넘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 과제를 담당하게 될 우리나라의 우주공학자들은 큰 부담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어렸을 적에 감히 우리나라가 달탐사를 하리라 꿈도 꿀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주 탐사의 시대는 여러분의 몫이다.

곽문규

공과대 기계공학과 교수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금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계약년도에 진로 및 취업병영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2008년 1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전학년
- 접수안내 : 1회~8회 접수: 본관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조은의/교내 3054)
- 모집인원 및 장소 : 희망 선착순 100명 다양한 세미나실
- 강의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실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30분~ 8시00분)

회	일	시	내	용	강	사	명	소	속	비	고
3회	4/1		<전기·전자> 유비쿼터스 시대 취업하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공효식			LG전자 인사팀			
4회	5/6		<백화점> 유통업분야 취업 열보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백영춘			현대백화점 지원팀장			동문
5회	5/13		<아나운서> 아나운서 취업의 이모저모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한상권			KBS 아나운서			동문
6회	5/20		<공기업> 공기업 바늘구멍 통과하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이주석			한국전력공사 인사팀 과장			
7회	5/27		<직업탐구 : 교사> "사립학교 취업 성공하기"		황영남			인천삼량중등학교 교장			동문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2008년 졸업Pass제 대체강좌 공고

개설취지 및 목적	1. 졸업인증 미 취득자에 대해 보충학습 기회 제공 2. 강좌는 졸업인증 Pass제의 취지에 합당하게 구성되며 출결 및 성적이 엄격히 관리됨. 3. 대체강좌(학기, 방학)의 탄력적 운영 4. 2008년 2학기(3차) 중에도 개설, 그러나 겨울방학에는 강좌 없음
강좌구성	학기중(1차) : 2008년 4월 14일(월) ~ 2008년 6월 5일(목) 월/화/수/목 7시~8시30분 (8주 48시간) 방학중(2차) : 2008년 6월 23일(월) ~ 2008년 7월 5일(토) 방학중 : 월~토 : 9시 ~ 1시 (2주 48시간) 학기중(3차) : 2008년 10월~11월 예정 - 추후 공고
강의내용	TOEIC LC+RC/청취 강좌 / Reading Voca /비즈니스 영어
강 의 실	추후공고
수강자격 및 조건	1.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영어Pass제 미통과자 및 수료자로서 2. 영어공인인증시험(TOEIC, TOEFL, TEPS) 및 외국어교육센터 Pass제 모의토익 시험 3회 이상 응시 경험 있어야 수강 가능함 3. 2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대체강좌 수강 불가
총점산출	출석률 60% + 대체강좌 시험 성적 40%
Pass 기준	1.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Pass 2. 2회 이상 결석 혹은 대체강좌 시험 미응시는 점수와 관계없이 재적 3. Pass의 경우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것으로 처리
접수일자	1차 대체강좌 : 3월 20일(목) ~ 4월 10일(목)
접수장소	혜화관 1층 외국어교육센터
준비물	신청서, 사진 2장, 신분증, 시험응시증빙서류(성적표)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과거 영어시험 증명자료(성적표)와 같이 접수 후 2. 온라인 입금 :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7-481766 / 예금주 :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수강료	200,000원 (교재 별도)
문의사항	2260-3468, 3470

외국어교육센터

노래로 배우는 한자 2,000자

학생들의 효과적인 한자학습능력 향상과 전통문화에 대한 접근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자특강이 실시됩니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특강주제 : "노래로 배우는 한자 2,000자"
- 특강일시 : 4월 매주 목요일(3, 10, 17, 24일) 18:00~20:00 (총4회)
- 특강장소 : 문화관 덕담세미나실
-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교직원 및 대학원생도 참석 가능)
※ 행사전 사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 접수자 우선 (당일 참석도 가능)
- 강사 : 변규백 선생(한자교육전문가 및 작곡가)

문과대학 · 통합인문학특성화사업단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수학과에서는 교양수학의 효율적인 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튜터링을 운영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08. 03. 03 ~ 06. 20
일시 : 월~금 오후 2~5시
장소 :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문의 : 수학과사무실 (02-2260-8712)

수 학 과

기획연재 - 등록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③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재단 · 종단 쇄신, 우리대학 발전의 열쇠

잠재된 불교계 기부소득 현실화 · 재단이사회의 다양한 기여 방법 모색 필요

글 쓰는 순서

1. 등록금 문제의 본질
2.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 및 재정확보
3. 재단과 종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문제 해결방안
4. 외국대학의 모범사례

‘재단전입금을 확충하라! 등록금을 인하하라!’

1988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외치던 소리다. 필자가 동국대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던 때 교정을 도배했던 구호다. 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 아득한 후배에게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기획물 ‘종단과의 관계와 재정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글을 청탁받았다. 과연 틀레방아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이치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먼저 답답해 진다.

불교종단 대학의 위상

불교종단에서 설립한 대학교로 동국대학교(조계종), 원광대학교(원불교), 위덕대학교(진각종), 금강대학교(천태종)가 대표적이다. 하나씩 보자.

△원광대학교 =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른 안배라고 해도,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위덕대학교 =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을 주요 교육목적으로 내세우며, 지역화 - 특성화 전략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5대 명문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성장해 가고 있다.

△금강대학교 = ‘소수 정예 교육의 전당’을 기치로,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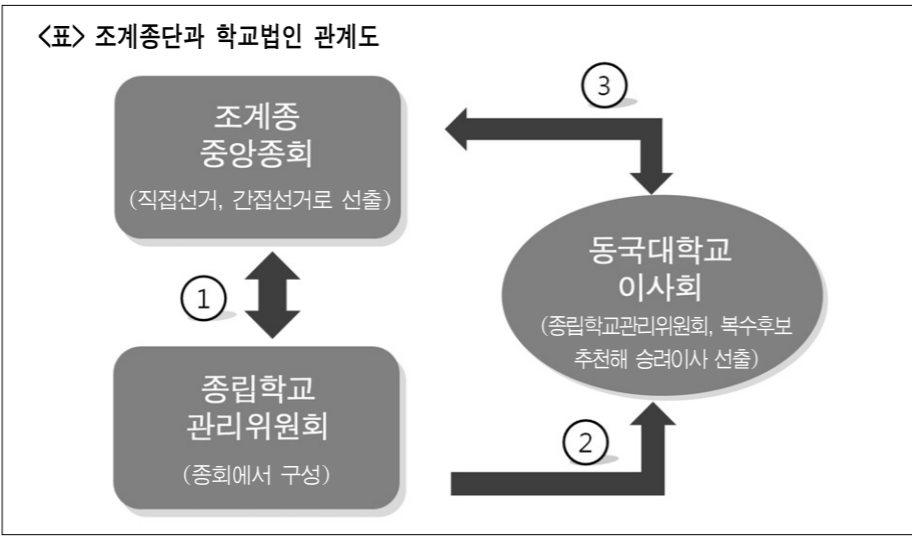
물론 동국대학교는 100년 사학으로서 높은 평판도와 인지도를 지녔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의 4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소재 대학이라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의 한 논문(동국교육의 지속적 품질개선체제 구축계획 - 2003. 1. 전영일, 홍운기)에 의하면 동국대학교는 ‘국내 대학교 사이에서 대체로 20~30위, 중하위권’에 속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은 또 재단전입금이 전무한 상황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예비인가학교에서 탈락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불거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으로 인한 동국대학교의 이미지 실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회를 둘러싸고 불거지는 불협화음이 동국대학교를 추락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국대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은

동국대학교 이사회를 둘러싼 조계종단의 불협화음에 있다. 그러면 조계종과 동국학원 이사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음의 표, 조계종단과 학교법인의 관계도를 살펴보자.

조계종과 이사회의 관계



① 조계종단의 국회격인 중앙종회는 ‘종립학교가 건학이념 및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관리, 지도하기 위한 종단기관’인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은 총 11 ~ 15명인데, 대부분 중앙종회의원이 겸직한다.(표 참조)

② ‘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종립학교의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관리감독 보다는 종단 내 여러 계파간 안배를 통해 동국학원 이사 총 13인 중에서 승려이사 9인을 이사회에 복수후보로 추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승려이사 9인의 선출을 위해 이사회후보를 복수 추천한다. 이처럼 추천된 총 18명의 이사회후보에 대해 재단이사회가 최종적으로 9인의 승려이사를 선출한다. 여기서 이사회추천을 둘러싸고 이른바 ‘계파’간 이해충돌과 이합집산, 불협화음이 생긴다. 왜냐하면 중앙종회에서 이미 계파안배를 통해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을 선출했

기 때문에 이들이 자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여야 할 임무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자기를 뽑아준 계파에서 이탈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계파를 지지하는 ‘반란표’도 생긴다.(표 참조)

③ 조계종 종현, 종법에는 겸직금지라는 조항이 있다. 이를테면 중앙종회(국회)의 의원과 총무원 집행부(행정부) 총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조계종 종현 52조 4항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동국학원 이사(장)를 겸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은 동국대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폐회된 조계종 중앙종회에 동국대 이

사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종회의원 2/3(재적의원 79명)가 넘는 63인이 발의에 서명했다. 서명자만 찬성하였어도 넉넉히 개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된다. 그러나 부결됐다. 아이러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다. 이 개정안이 현재 중앙종회의원과 동국대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지만, 장애에 동국대 이사 차례가 돌아오길 바라보고 있는 종회의원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표 참조)

결론적으로 말해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국대 이사회가 쇄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 말은 바로 조계종 중앙종회가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동국대는 조계종 종립학교다. 이 정의에서 동국대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동국대학교가 종립학교인 것에 대한 법적

인 표상은 승려이사 9인을 종단에서 파송하여 종립학교 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조계종 중앙종회가 쇄신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들에 의해 선출되는 종립학교관리위원들이 쇄신되며, 그런 연후에야 종립학교의 발전에 공심과 더불어 능력을 갖춘 승려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쇄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증명해보자. 먼저, 앞에서 예로 들었던 동국대 승려이사과 결부된 조계종단의 이해관계와 그를 둘러싼 종들이 부정부패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각종 송사와 갈등이 외부적으로 불거지면 이는 동국대학교의 평판과 브랜드 파워를 찍먹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교수진이 집결한, 위에서 제시한 논문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 보자.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동할 수 있는 기회 자원 6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교 조계종 종립학교로서 재단의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의지만 있으면 상당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광범한 불교계의 잠재적 기부 의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무궁무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불교적 사상 자원’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지적은 매우 의미심장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말한 ‘재단의 확고하고 신뢰할 만한 의지’이야말로 바로 이사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왜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가 쇄신되어야 하고, 이사회가 쇄신되면 조계종중앙종회가 쇄신되어야 하는지 증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종립학교 강점 살리기

그러면 이제 쇄신된 이사회가 동국발전을 위해, 종립학교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희망사항으로 넘어가자. 이 희망사항은 말 그대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선 앞서 예로 든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불교계의 잠재적 기부 의욕을 최대한 현실화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국대학교의 발전이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비전을 선포하게 수립·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국대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종단에 몸

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단과 학교의 종학(宗學)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한발 더 나가 종단은 배출되는 학생들이 종단을 어엿한 직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불거지거나 불교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배출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무궁무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불교적 사상 자원’을 현실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범종단적인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데, 이는 탁상 토론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역량결집이 될 만한, 범 종단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그 하나의 예로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까 한다. 지난 해 조계종단의 예산을 보면 약 21억 8천여 만 원이 ‘중앙 승가대 이전 특별회계’다. 단순히 종단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동국대학교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승려를 배출하는 요람이라고 불자들에게 확고히 인식될 때, 잠재적 불자 기부자의 기부욕구를 충족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조계종단을 기반으로 하는 재단의 재정확보나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 없이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모든 대학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재정의 확보는 대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동국대학교는 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재단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 종단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립 동국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 권력구조의 혁신과 재단이사회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재단이사 발전기금 의무화

이를 위해 필자는 현재 재단이사 13인 중 9인이 승려이사여야 한다는 법인정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의 해산마저도 의결할 수 있는 9인의 승려이사 수는 사실 1980년대 사립학교법이 개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인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사립학교법이 잘 못 고쳐

지면서 재단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종단 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려이사의 수가 대폭 증원됐던 것이다. 문제는 이사 수의 증가보다는 증가된 승려이사들이 재단이 사회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다. 한가지 예로 불교방송을 들 수 있다. 불교방송 역시 종단이 방송하기에서 설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불교방송의 이사가 되기 위해선 3억원이라는 이사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방송발전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 이사는 임명할 수 없다는 불교방송 재단의 엄격한 기준인 셈이다.

그런데 한해 예산규모가 2천 5백억원 규모의 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의 재단이 사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재단이사에 선임되는 이사들이 일정한 이상의 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과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학교운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이사의 수를 늘려 이사회가 명실상부하게 학교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늘어난 승려이사의 수를 과반수 정도로 제한하고 엄격한 기여방법을 명시해, 책임 없이는 권한도 없다는 노블리츠 오블리제를 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국대학교 발전에 조계종단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많다. 청년의 세월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한국불교는 저력 이 있다. 문제는 리더다. 리더가 먼저 제 주머니를 털고, 가야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며, 갑옷을 두르고 선두에 서지 않는 이상 희망사항은 그저 꿈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동국대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득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의 쇄신이라는 장막이 겹쳐야 비로소 우리 손에 잡히는 현실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윤 남 진
참여불교재단대 전문기관
교단자정재단 정책위원장

제48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

1. 일 시 : 2007년 4월 11일(금) 09:00~15:00.

2. 장 소 : 국립4·19민주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오전 9시 까지 국립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3. 참가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동국가족

4.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 소	시 간	유의사항
4.19혁명 기념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 10:00~10:20	09:50분까지 참가자 전원 기념탑 앞으로 이동하여 합동분향
개회식 및 출발	국립4·19묘지 내 광장	개회식 : 10:20~10:30 출 발 : 10:30부터	시간 엄수
중식	대동문	중 식 : 12:00~13:30	지나친 음주 절대 삼가, 쓰레기 개인별 수거 후 하산
하산	도산사방면	하 산 : 13:30부터	4인 1조팀 배번 반납, 하산길 안전사고 유의

5. 팀 구성
가. 4인 1조팀 : 학과(부),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부) 단체팀 : 지도 교수 2인 이상, 재학생 40명 이상으로 구성

6. 시 상
가. 4인 1조팀 : 총 10개팀
나. 학과(부)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7. 접수기간 : 2007. 4. 1(화)~ 4. 8(화) 09:00 ~ 17:00

8. 접 수 처
가. 4인 1조팀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본관 3층)
나. 학과(부) 단체팀 :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9. 공지사항

- 가.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나.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 다. 대회 진행시 시간 엄수(출발, 중식, 하산 등)
- 라. 도시락과 쓰레기봉투는 각자 준비
- 마. 참가자 전원에게 등산대회 기념품 지급
- 바. 4인 1조팀, 학과(부) 단체팀 심사기준
 - 1) 환경 보호 : 쓰레기 수거(분리수거), 산불조심 홍보 등
 - 2) 단결성 및 협동성 : 팀웍 및 구성원간의 협력도
 - 3) 복장 통일성 : 단체 복장 착용 여부
 - 4) 단체팀(학과, 4인 1조)의 차별적 홍보 등
 - 5) 참가 인원(현장 파악)

10. 유의사항

가. 음식물 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등·하산시 무리한 음주는 피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2260-3043)

학사지원본부

불공정 선거 시비로 분열된 학생사회에 대한 당부

제40대 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비유될 정도로 신성하고 중요한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준비 단계부터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여러 학생자치기구(5개 단과대학 대의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이과대학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구성과 선거일정 공고에 있어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다른 후보가 입후보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박탈(피선거권 박탈)하였다는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선출된 학생자치기구장(선거관리위원장)을 재공고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음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된 오류에 대해 숙고하고 회칙과 정당한 절차에 의거 합법한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다수의 학생들의 인정을 획득한 후 선거 일정을 재공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선의 노력과 합의의 도출된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에 만 재반지원을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학생사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일만 이천 재학생 누구나 동의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제40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학사지원본부장



2008 동영국제음악제를 가다

항구도시가 음악도시로 ... 통영은 변신중

갯내음과 브라스 밴드가 하나로, 대중적 호응 잇달아

바다 내음이 가득 밴 북바람 냄새를 맡으며, 노신사 브라스밴드가 연주하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듣고 있다. 이런 광경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세계적인 현대음악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 바로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이런 상상이 현실로 이뤄진다. 항구도시 통영에서 2008동영국제음악제의 봄 시즌이 시작됐다.

이번 시즌은 '자유(freiheit)'란 주제 아래, 정규 공연 프로그램 이외에도 대중성에 무게를 둔 '프린지(Fringe)'중심의 음악제가 펼쳐졌다. 프린지란 '축제 공식 공연의 주변부'로 불리는 길거리 축제로서 아마추어부터 전문 뮤지션까지 다양한 공연 팀과 관람객이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음악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즌부터는 기존의 강구안 항구 및 프린지 홀 이외에도 교회, 학교 등 장소의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바다가 눈앞에 있는 강구안 공연무대는 통영만의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린 예로, 항구 특유의 분위기와 다양한 장르 음악의 향연이 청중의 오감을 자극했다. 더불어 밤 공연에서는 에너지 넘치는 밴드들의 공연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프린지 공연들을 '젊음과 열정의 자유'로 비유하자면, 동영국제음악제 정

규 공연 프로그램은 고전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목표로 한 '정제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일찌감치 매진된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번 봄 시즌 동영국제음악제의 간판 섭외라고 할 수 있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윤이상의 교착적 음향,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과의 협연 및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던 베토벤 교향곡 7번이 끝나자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이어 공연장 밖 개막 축하 불꽃놀이와 함께 야외 국악 공연이 흥겨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시즌 정규공연에는 이외에도 자크 루시에 트리오,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힐러리 한 등 유명 음악가들이 함께 초청되었다.

국제음악제는 지방민 소통의 장과 더불어 관람객과 지역민이 한데 어울어지는 축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국제음악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통영에서 살고 있는 문호준(33, 일반인)씨는 "통영에서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나 짝 공연이 많지 않다"며 "국제음악제를 통해 좋은 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아 지역 민으로써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악제 시작의 모태인 윤이상 선생의 관련 부대행사가 적었고 공연 장소가 협소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항에서는 관람객 권양회(36, 일

반인)씨는 "구 군청 건물을 쓰고 있는 프린지 홀은 소극장을 표방한 듯 보이거나 장소가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통영시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윤이상 음악당 및 음악타운 건립을 준비하고 외국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 담당자 양은경씨는 "예년 부터 받아들인 지적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축제는 없다"며 "내년도 아시아현대음악제와 연계한 봄 시즌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시아 단체 관객을 유치하는 정책의 도입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2008 동영국제음악제는 이제 봄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가을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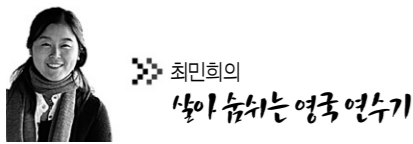
단순히 섭외된 몇몇 뮤지션들과 협소한 이벤트들을 특정한 기간, 특정한 장소에 한데 모아 '축제'라는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동영국제음악제다. 보물 같은 통영만의 자연과 느낌을 무기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차별성 있는 국제적 음악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강구안 프린지 공연



최민희의 '나아' 시리즈는 영국 연수기

② 살인적인 물가 ... 가계부는 필수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영국. 실제로 그 체감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높은 호텔 숙박비는 영국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물가다.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체스터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주당 £100였다(£=pound=파운드, £1=₩2,000으로 계산한다). 런던은 약 £150이고 남부지역 일부는 £100 미만도 한다고 들었다. 1인 1실에 아침과 저녁식사, 주말에는 3식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입이 딱 벌어지게 높은 체감비용이다. 그러나 사실 영국의 어마어마한 세금과 물가,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다소 수긍이 간다. 물론 자취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세금을 포함한 방 렌트비가 주당 £70~75 정도. 생필품 비, 식대 등이 부가적으로 들지만 평균적으로 호텔비보다 약간

저렴하다. 내 경우에는 ▲영어 사용 기회 ▲영국 문화 체험 ▲안정감 및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가진 호텔을 선택했다.

다음은 교통비다. 버스가 모두 민간 기업이다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다. 버스는 거리에 비해 증가하는 데, 평균적으로 £1~2.50 정도이다.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30~40 정도를 교통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집과 학교가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잘 갖춰진 보행자 도로와 전원적인 풍경은 걷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아는 동생은 매일 45~50분을 걸어 다니기도 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다. 그러나 밤늦게 혼자 걷는 것은 다소 위험해 가끔 택시를 이용했는데,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리에 무려 £3.50나 지불해야 했다.



잘 갖춰진 가구와 따뜻한 분위기로 편안한 8개월간의 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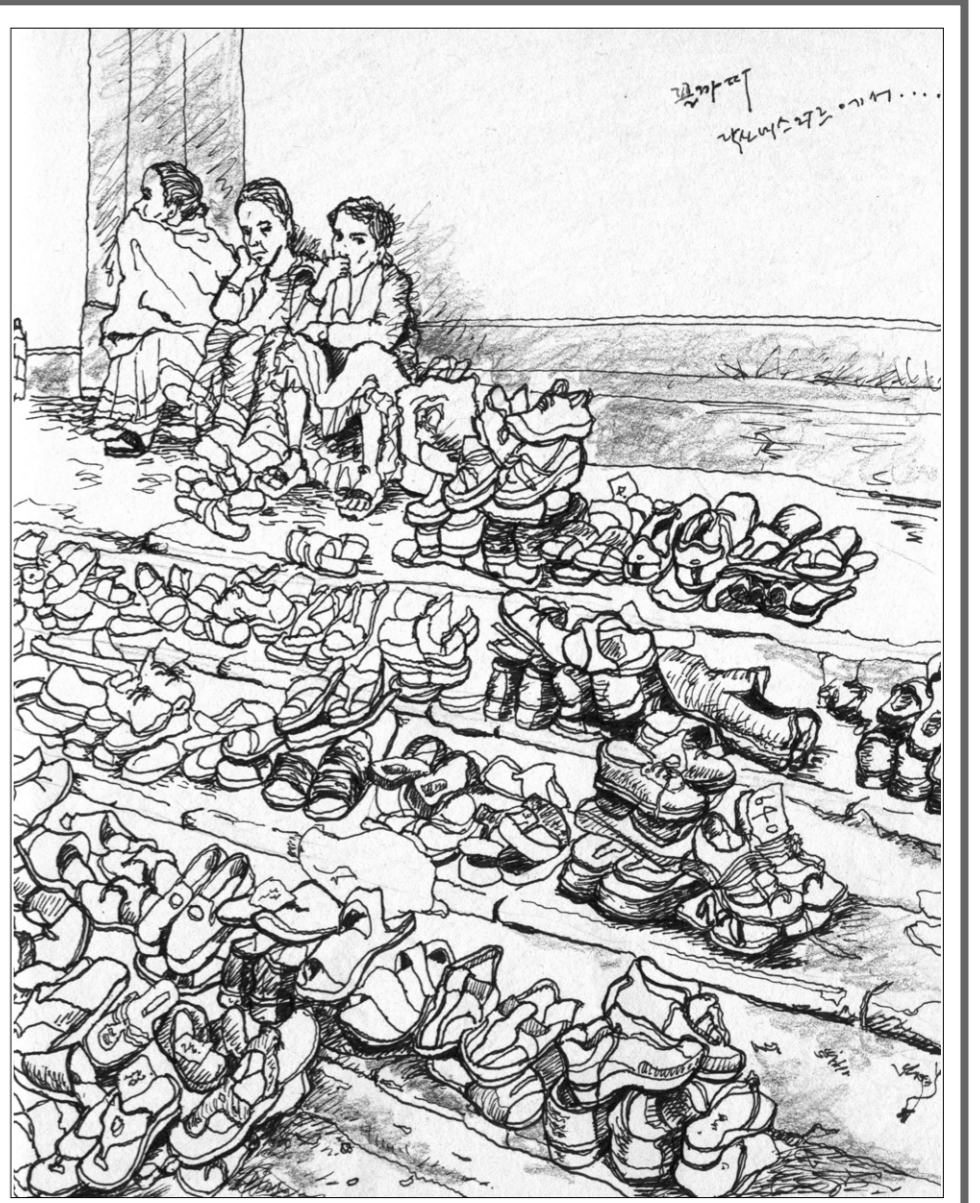


세계 다양한 음식문화를 맛보고 우리 음식을 친구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행사, International Food evening.

영국 현지인들도 특별한 날 외에는 외식을 잘 하지 않는데, 바로 높은 외식 비용 때문이다. 레스토랑의 저렴한 점심 메뉴가 평균 £6~9정도. 저녁외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한 번은 친구 생일파티를 위해 4명에서 중국 레스토랑에 갔는데 일인당 무려 £25를 지불했다. 거의 일주일 생활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유학생들에게 외식은 사치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일주치 점심을 위한 장을 본다. 저렴한 빵과 야채, 햄 등 샌드위치 재료, 마켓 자체 브랜드의 인스턴트식품 등이 대부분이다. 가끔 과일도 산다. 평균 £5 안팎이다. 그렇게 손수 만든 도시락으로 매일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생활비 외에도 학교의 다양한 교외활동에 참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 무엇보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때문에 나는 외식비와 쇼핑비, 통신비 등을 줄이는 대신 학교 교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매일 꼼꼼하게 적은 가계부는 한 주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연수비용을 절감시키면서도 ▲외국인 친구 사귀기 ▲영어능력 향상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최민희 (사과대 신봉4)



그림으로 본 인도이야기

〈2〉 삶의 원류를 향한 두 발

감정과 이성 이 혼재된 인간은 시공간을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흐르는 강물의 한방울 물과 같은 존재라고 누군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 하나의 물방울이 '톡' 하고 튀어 올라, 연어가 회귀하듯 삶을 거슬러 가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생각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 여행을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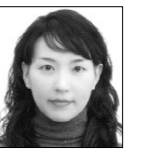
삶의 많은 문제들은 오직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기에 한 순간도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 놓기가 힘들고 두렵다. 여행은 바로 우리의 머리속에 혼재된 그 문제들을 잠시 동안 잊게 해준다. 힘든 여정을 택할수록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 낼 여유가 없다. 오직 하루를 걷는 법을 배울 뿐이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외딴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온 신경을 곤두 세우다 보면 어느 덧 삶의 가장 단순한 지점에 다가가 있음을 느낀다. 나는 최소한의 것들만을 꾸리고 낡고 버릴 것만으로 배낭을 채웠지만 신발만은 단단하고 편안한 등산화를 마련해 갔다. 탄탄한 신발은 든든한 여행의 동반자이기에 흠여 물어버릴까 싶어 어디가나 신발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풀가까의 닥신네시와르 칼리 템플(Dakshineswar kali Temple)에 도착했을 때 썩어가득 쌓인 신발들을 보고 놀랐었다. 그 옆으로는 맨발로 한손에 꽃과 향을 들고 줄을 선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나도 신발에 양말까지 벗고 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촉촉하고 끈적거리며 군데 군데 개와 소, 양들의 배설물이 있는 바닥의 느낌은 결코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포기할 수 없었던 최소한의 문명(?)의 조각인 등산화를 벗음으로 해서 내 여행은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까지 열리고 있었다. 나의 두 발은 내 삶의 원류를 향하고 있었다.



김상남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 지리교육과 96졸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상담] 동국관(M동) 4층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TEL : 2260-3380 FAX : 2260-3385 http://www.writing.dongguk.edu

제2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대상 : 2007년 1학기/2학기 및 2008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전공과목, 졸업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 및 제1회 공모 제출 보고서 제외)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상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3인(부분별 1인) 각 300,000원 우수상 6인(부분별 2인) 각 200,000원 장려상 15인(부분별 5인) 각 100,000원
- 기타 : ◊ 첨부하는 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보고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우수 보고서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제1회 외국인 학생 대상글쓰기 공모

- 나의 한국 문화 체험기 -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공모주제 : 나의 한국문화 체험기 (A4 7매 내외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부문 : 감상문(독서보고서,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연구조사보고서(학술답사, 연구조사) 일반보고서(그외 일반)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상 2인 각 200,000원 장려상 5인 각 100,000원
- 기타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제1회 독서와 글쓰기 공모

동국대학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회 독서와 글쓰기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공모 도서 : -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이한음 옮김, 김영사, 2007) - 바리데기 (황석영 지음, 창작과비평사, 2007) - 에밀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 - 리관유 자서전 (리관유, 문학사상사, 1999)
- 응모 형식 : 독서감상문 (A4 5-7매 내외 자유 형식 / 사진 등 자료 포함 가능)
- 응모 방법 : 글쓰기센터 방문 직접 제출
- 응모 마감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심사 결과 발표 : 2008년 4월 2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인 300,000원 우수상 3인 각 200,000원 장려상 6인 각 100,000원
- 기타 : ◊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강좌명, 담당 교수명] ◊ 선정된 글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추후 자료집에 수록됩니다.

2008년 1학기 보고서 집중상담프로그램

지원 안내(추가 지원)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고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지도해 주는 보고서 집중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출할 보고서를 대상으로 보고서의 준비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3회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

- 지원 대상 : 2008년 1학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졸업논문 및 전공과목과 조별과제물은 제외)
- * 특히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선발 인원 : 10명 내외(소정의 상품 지급)

■ 신청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08년 3월 7일 - 2008년 4월 4일
-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heukchun@naver.com) 혹은 방문 제출(신청서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writing.dongguk.edu)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글쓰기센터를 방문하시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2008년 4월 11일(홈페이지 및 동대신문) (*4월 15일 오후 4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글쓰기센터 상담프로그램 안내 Counsel Program

프로그램	일반상담프로그램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석사과정)	당일방문상담	이메일상담
상담내용	자세한 질의 및 상담	간단한 조언	간단한 이메일 코멘트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일 방문 신청	1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일반상담 프로그램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는 학부생 상담, 대학원생 상담이 있습니다.

▶ 학부생 상담 :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나 글을 쓴 이후 자기 글의 문제점을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글쓰기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모든 글(발표문, 서평, 기말 보고서 등)이 상담의 대상이 되며, 상담은 글쓰기센터 연구조교들이 담당합니다. 보고서의 계획서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상담 : 글쓰기센터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을 위하여 세미나 발표문이나 기말보고서, 학위논문의 개요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전임연구원이 담당하며, 주로 글을 계획하고 구조를 만드는 문체에 관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 당일방문상담 프로그램(주 2일 8회 4시간 한정)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글쓰기센터로 바로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성 단계에서 의문 사항이 있거나 보고서를 쓰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 그날 바로 빠른 상담을 원할 때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언제든지 글쓰기센터로 찾아오면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상담 프로그램

비교적 짧은 글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얻고 싶을 때는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상담의 경우 학생은 직접 글쓰기센터를 찾아올 필요가 없으며, 이메일을 통해 코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글에 대한 자세한 질의나 조언은 불가능하며,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질의를 원할 경우, 이메일상담을 받은 후 정식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달하나 천강에



김왕준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요즘 대부분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영어수업이 어렵다고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어야 한다. 내가 터득한 방법이 사랑하는 내 제자들의 영어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쓴다.

첫째, 강의 내용을 녹음하라.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반복해서 들으라. 둘째, Key word를 연결하고 symbol을

사용하라 (이공계 학생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영역과 달리 이공계는 긴 문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긴 문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꼭 삽입되어야 할 key word를 연결하고 문장대신 symbol을 사용하라. 이공계 교수님들은 이를 더 선호하신다. 셋째, 영어를 영어로 기억하라. 아직 많은 학생들이 영어강의 내용을 애써 우리말로 번역한 후 이를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답안을 영어로 작성하기 위해 애써 우리말로 기억한 내용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도중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마치 단백질이 합성될 때 transcription, translation이 두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많은 기형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전혀 엉뚱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물론 생명체는 이를 교정하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영어로 정보를 입력하라. 넷째, 전자사전을 잘 활용하고 큰소리로 따라 읽어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다. 전자사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어의 뜻은 물론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소리"로 알려주는 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단어의 뜻만 간단히 찾아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듣지 않는다.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전자사전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을 외면한 학습방법이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 단어가 정확히 소리내어져 전달 되었을 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pop song을 많이 들으라. 나는 "영어공부"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한다. 하여튼 공부라는 단어는 우리를 지겹게 만든다. 그러나 늘면서 영어와 친할 수는 없을지? 있다. 영어노래를 심심할 때 들어라.

일곱 번째, TV 영어방송을 최대한 활용하라. 요즘 cable TV만 틀면 영어방송이 홍수를 이룬다. 이렇게 많은 공짜매체를 두고 따로 비싼돈내며 사설영어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따로 영어공부하지 마라. 전공과목 영어를 보며 그것으로 영어 공부하라. 전공과 영어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 아홉 번째, 그래도 하기싫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다 (It's up to you). 그러나 이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임을 인정하라.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세상은 철저히 globalize하지 않은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걸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도 싫으면 혼자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살면 된다. 그러나 이런 삶은 나중 retire할 때 들어라.

이공계 학생을 위한 영어몰입교육

대강의 난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들어주세요



△변비는 니코틴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대장외과 추천 △고딩이나? △매너는 니코틴에 비벼드셨나요 △항Good 항Good 하게 살자구... △버섯이 금연 적혀 있는 그 앞에서 담배피는 용기 가상함 △정말 담배연기를 증오하는 사람으로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놈 머리 위에다가 X표를 끼고 싶음 △내가 대통령 되면 담배 1갑에 10만원 해버릴거다 △특정 공간에서는 하나만 해결합시다... △흡연자 덕분에 우리가 노후 연금을 땀땀하게 타는거야. 감사하게 생각하라구 ㅋㅋㅋ △화장실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해결합시다;; △어디서든 흡연해도 좋으니깐 국산담배 퍼라 ㅎ △이 넓은 학교에서 피울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피우십니까...-^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Includes items like 돈갈비김치찌개, 미트소스볶음밥, 김밥, 쌀국수, 짬뽕국, 닭볶음탕, 닭가슴살, 닭볶음탕, 닭가슴살, 닭볶음탕, 닭가슴살.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Includes items like 김밥, 햄계란구이, 어묵메추리알조림, 비엔나케첩볶음, 두부김치, 부대찌개.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y, Menu. Includes items like 김치찌개, 집터국밥, 버섯육개장, 돈들배우거지, 부대찌개.

지구촌 시대 대학생 봉사활동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자”

황사에방·자원봉사의 장 마련...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올해는 유난히 사막으로부터 황사가 많이 불어온다고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황사 발생 일수인 11일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20여일 정도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먼지의 농도 또한 예년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러한 황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막화에 있다는 점이고, 점차 그 면적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원지인 사막에 나무를 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학교가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학교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가 주최하여 작년부터 몽골에 '동국대학교 자비의 숲'을 조성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솔통거스회원 모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 39대 총학생회의 후원과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 산림자원학과 학생회, 산림자원학과 학술소모임 나모회의 협조로 작년 9월 한가위 축제와 가을 대축제 때 약 700여명이 모금해 주어 황사사막화방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몽골에 '동국대학교 자비의 숲'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운동은 작년 한 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어떠한 대학도 황사사막화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숲을 조성한 예는 아직까지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학교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황사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 '동국대학교 자비의 숲'을 조성한다면, 사막화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사막화를 막으면서 황사의 영향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사막에 숲을 조성하는 데 사라져가는 생물종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조성된 숲을 잘 관리하면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탄소배출권 획득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가능해져 지구촌 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사막을 녹화하는 데는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학교 학생이 직접 사막 현장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자원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몽골과의 문화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동국인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사회경험을 쌓게 해주고, 글로벌 인재로의 수양에 도움을 주는 기반이 마련되게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학교의 위상이 제고될 것임



을 확산한다. 특히 몽골의 국교는 불교로서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중시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과도 이념을 같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문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 동국인의 정신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자비의 정신으로 몽골 사막 나무심기에 더욱 많은 학생,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수광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 연구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강의평가 교수 입장 지면할애 더 필요

지난 1455호 2면에 실린 '강의평가 공개 후 확 달라진 개강 분위기' 기사는 강의평가 실시 결과 공개 후 달라진 강의실 분위기를 전해주는 내용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월,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결과 공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결과 공개 후 강의실에선 첫 강의에서부터 달라진 교수들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면을 학생과 학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을 뿐, 교수들의 입장은 마지막에 조금 소개되는 정도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강의평가 결과 공개를 둘러싼 학교 측과 교수회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골은 기사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단순히 교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본 기사를 포함해 지면 어디에도 이번 결과 공개의 문제점이나 그로 인한 갈등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학생뿐 아니라, 교수들도 우리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

의평가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에 좀 더 지면을 할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동대신문은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쇄언론매체이다. 강의평가에 대한 입장은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측, 교수들의 입장이 상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 역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상반된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앞으로 동대신문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영록 (사과대 정의3·매체비평연구회)

보리소

자유티벳(Free Tibet)의 실험

중국 지배하에 숨죽이고 있던 티베트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 자체도 발포나 사망자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유혈상태로 전개된 데에, 국제사회의 비난은 주로 중국 정부를 향하고 있다.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를 적지 않게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티베트인들의 쫓겨나기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티베트인 중에 '자유 티벳(Free Tibet)'의 의미를 중국으로부터의 완전독립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자치를 인정받아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려는 달라이 라마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일까, 철저히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왔던 스님 '달라이 라마'를 곤혹스럽게 하는 시위의 행동 역시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티베트인들의 쫓겨나기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쫓겨나기가 만약 중국으로부터의 유혈진압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희망과는 달리 티베트인들에게 폭력적 저항의 유전자를 심어 주게 될지도 모른다. 원한은 원한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티베트인들의 쫓겨나기가, 앞으로도 티베트인들의 독립(내지 자치)운동이 비폭력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하나의 실험 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폭력적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곧 달라이 라마의 입지를 어렵게 할 것이다.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비폭력적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추구해온 (달라이 라마의) '자유 티벳'의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끝없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중국마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이 달라이 라마의 존재를 견제하게 인정하는 길이 차선책이 되리라 본다. 아무 조건없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호성 불교학부 교수

대학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이성간 솔직한 의사소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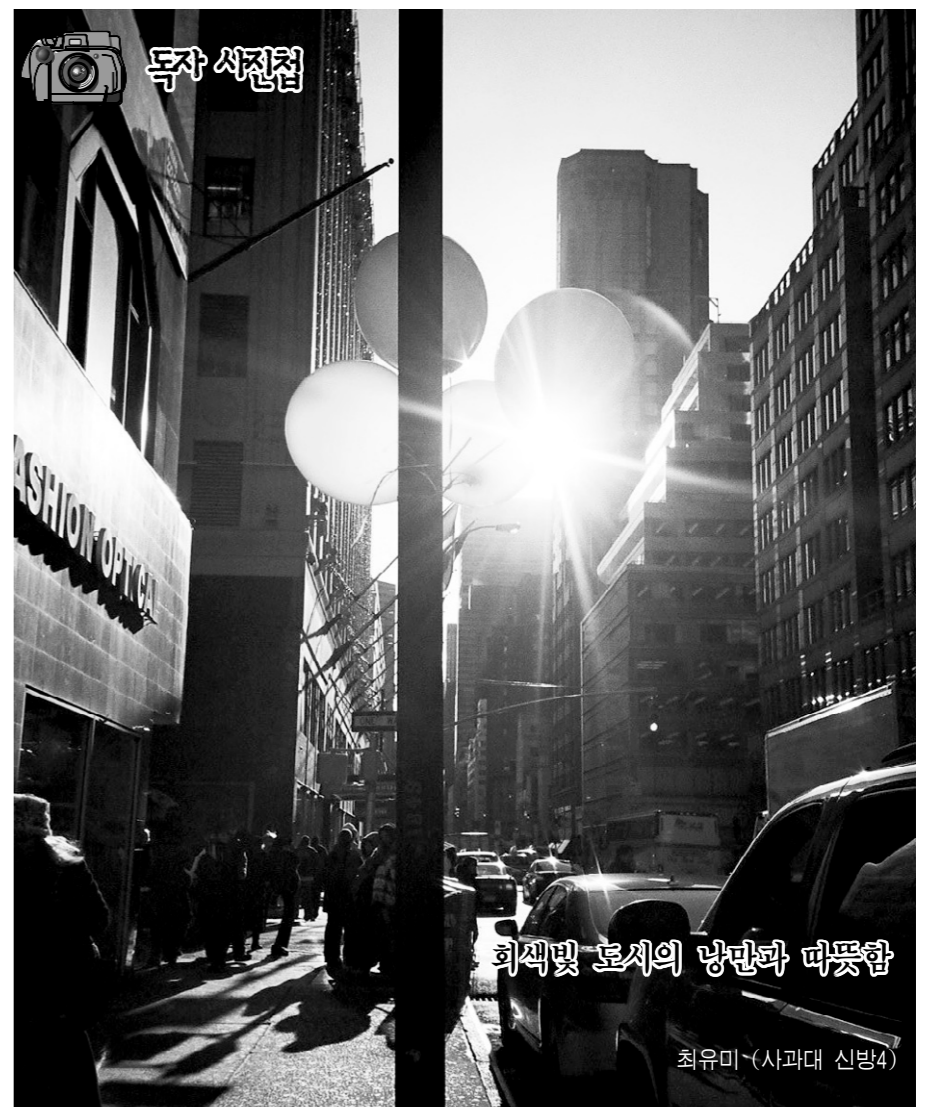
학교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교내 구성원들의 마음도 겨울 내내 풍풍 일었다가 풀린다. 바로 많은 청춘들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흔히 남녀의 만남을 우리는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성폭력(데이트강간)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트 성폭력은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써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2002년 상반기 성폭력에 대한 전체 상담 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강간이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에 대한 느낌과 의견은 다른 주제보다 솔직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이성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성행동에 대한 요구에 대해 YES는 YES로 해석되지만, 여성의 침묵을 YES로 해석하지 않거나, NO라고 표현했을 때에도 상대방의 NO를 YES로 해석하



임미영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성고충상담원



희썩썩 도시의 낭만과 따뜻함

최유미(사과대 신방4)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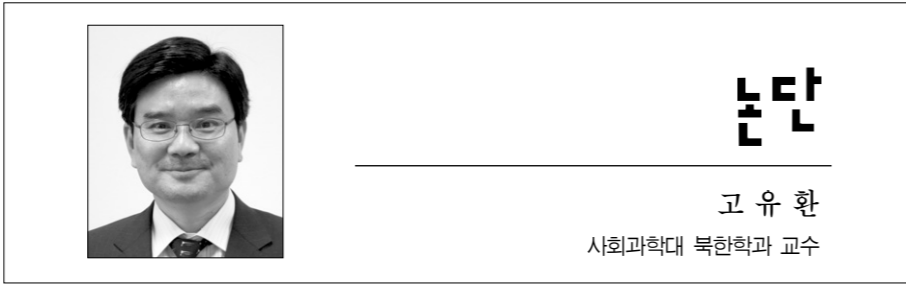
‘일방주의’ 고집, ‘경제’ 발목 잡을 수도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후보검증 공방에 집중함으로써 후보들이 제시한 분야별 공약에 대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히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친북좌파’ 공방만 이뤄졌을 뿐 구체적인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변영을 이뤄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후보자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경제대통령’을 표방해왔기 때문에 대선 공약 이외에 통일 철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총선, MB정권 대북정책 시험대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4·9 총선’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어쩌면 총선이 대선을 왜곡했는지도 모른다. 일부 정치세력들은 대선보다는 곧 있을 총선을 의식한 정치행보를 했다. 대선은 이른바 ‘좌파정권 교체론’과 ‘대세론’에 맡겨졌고, 다수 정치인들은 총선을 의식한 사전 포석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이외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정권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로 진출해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에 임했는지도 모른다. 대선에서 일정 정치 지분을 확보한 후 총선에 임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아래 지난 대선이 치러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야당들은 정권과 지방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심을 얻으려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의 관심은 국내정치에 함몰돼 있다. 북핵문제, 자원외교, 대북정책 등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논단
고 유 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총선 이후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바깥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해결의 중대 분기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새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대북정책 슬로건을 밝힌 것 이외는 이렇다 할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구체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유이지만, 그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신중함 접근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이회창 총재가 자유선진당을 창당하고 대북정책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새 정부가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것은 지지층이 겹치는 자유선진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남측의 국내사정을 잘 아는지 북한도 남측 정세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유엔에서의 인권문제 제기 등 사안별 현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남쪽상황 신중히 주시

북한은 봄철이면 어김없이 요청했던 못자리용 비닐, 비료, 쌀 등의 지원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해와 국제 곡물 가격 폭등, 중국의 대북 곡물수출 제한 등으로 북한의 올해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 못지않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서 또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총선국면에서는 북측이 지원을 요청해도 이명박 정부와 여권은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북측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기 때문에 무리한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끝나면 이명박 정부는 미뤄두었던 숙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국면에 빠진 북핵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에서 양자접촉을 갖고 교착된 북핵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가 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대북정책의 방향도 실용주의보다는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도 대북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총선결과와 대북정책 방향을 일정한 영향관계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유선진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할 경우는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햇볕정책과 평화변영정책을 계승한 통합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는 화해협력정책의 일관성이 강조될 수도 있다. 북한이 숨죽이고 남측의 총선을 지켜보는 것도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일 것이다.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

대남의존성이 높아진 북한으로서는 일단 총선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할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대남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 행폐기와 개방 요구를 지속하면서 일방주의 대북정책을 통해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위기조성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해 등에서 위기조성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갈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방주의 대북정책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바로잡을 ‘대안’ 교과서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실증주의의 잣대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극우적’이다. “위안부로 강제동원 했다는 증언은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뉴라이트 재단 안병직 이사장의 발언이다. 또, 대안 교과서의 책임편집자 이영훈 교수는 “포주는 한국 여성들을 관리하는 한국 소 주인들입니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매매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국과 북한, 중국 등에 생존해 있는 ‘중국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증적’ 증언을 뒤집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드골은 나치에 협력한 반역자 약

300만명을 체포 선상에 올려놓고 11,500명을 사형시켰다. 끈질기게 처리된 반역자 속성은 프랑스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 세워주었으며, 프랑스가 지금의 영향력을 가지는데 기반을 닦아 주었다.

우리는 해방직후 친일부역자 처벌을 위해 활동했던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미군정의 비호아래 득세했던 친일파에 의해 어떻게 와해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뉴라이트 교과서에 오버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라이트 교과서는 어쩌면 ‘NEO 친일파’의 화려한 등장은 아닐까. 일본 극우파의 ‘후소사’ 교과서보다 더욱 보수적인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출현을 우려한다.

문서영 문화부장 syoob@dongguk.edu

메아리

‘드골’, 친일파 그리고 뉴라이트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나치에 의해 점령됐던 프랑스는 국내 시민 봉기를 통해 독일군을 직접 몰아내고 해방을 얻게 된다. 이후 세워진 드골 정부는 ‘나치 협력자 대 숙청’을 시작한다. 특히 지식인의 부역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대해 드골은 “프랑스가 다시 외국의 침입을 받을 경우

를 생각해서라도 이들은 엄벌되어야 한다고”고 반박했다.

▲지난 26일, 뉴라이트 진영 지식인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 기존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역사인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증주의에 입각해 기존 교과서의 잘못된 점을

사설

예일대 소송 이후의 과제

우리학교가 예일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5일 우리학교가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는 신 씨의 학외 조회 팩스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 달러에 달한다. 예일대는 신정아 사건으로 우리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동안 전혀 해명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과서한을 보내는데 그쳤다. 이러한 예일대 측의 이중적인 처사에 대해 학교가 예일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국내 언론의 무차별적인 추측·과장 보도에 의한 피해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학교는 각종 의혹 보도에 시달렸다.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부정한 과정을 거쳐 혜택을 받은 것처럼 비쳐졌다. 결국 2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쳤지만 ‘혐의 없음’으로 깨끗이 밝혀졌다.

학교는 이러한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차별적인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 엄정하고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되돌아보면 예일대의 거짓 해명으로 신 씨 사건이 야기됐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의 부풀려진 보도는 명예훼손을 넘어 우리대학의 교육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언론권력의 폭거에 가깝다. 이 때문에 신 씨 사건이 단순 학력위조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의 스캔들로 변졌고 어느새 우리학교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인식됐다. 그럼에도 학교는 언론을 향해 책임을 묻고 있지 않은 상태다.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떨어진 명예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펜부림’에 의한 우리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신 씨 사건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무엇이 새로운 출발인가. 언론이 저지른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이운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패러글라이딩, 단양의 하늘을 날다

년 하늘을 만질 수 있니?



❖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즐겨라 1. 패러글라이딩이 위험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안전장비를 통해 위험노출을 줄인다! 2. 많은 장비가 필요하므로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캐노피를 접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5분!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들의 노력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 인간으로서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 중력을 거부하는 꿈같은 이데 이상적이다. 이카루스가 정교하게 만든 날개로 하늘을 날았듯이 낙하산처럼 생긴 패러글라이더(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이 조합된 비행체) 하나로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항공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만나보자. 우리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바람소리' 비행 현장에 동행했다.

2시간 반 남짓한 시간을 고속도로를 쭉 달려 굽이굽이 좁은 외길 따라 마침내 도착한 평평한 대지. 이곳이 바로 충청남도 단양에 위치한 두산 활공장이다. 평평한 벌판의 가장자리에 우뚝 서니 눈앞에는 거칠 것이 없고 온 세상이 발아래 펼쳐져 있다. 맑고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한편으로 깎아지른 듯한 장엄한 기암절벽이 유려하게 펼쳐져 있다. 바람소리 회장 김용범(전기공과) 학생은 "이곳은 이륙장과 착륙장이 넓고 큰 산에 바람이 부딪혀 상승기류를 형성하므로 그 공간 안에서 릿지비행(상승비행)하기가 좋다"고 말한다. 이미 비행 전에 풍향상태는 점검해 놓았다.

패러글라이딩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능한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조건을 이용해 더 나은 비행을 하기 위해서도 기상에 대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바람은 2~6m/s 정도의 속도로 불 때가 적당하고, 10m/s 이상이 되면 비행이 불가능하다.

캐노피(날개), 하네스(비행자와 기체를 연결하는 장치) 등을 몸에 장착하고, 비행을 준비하는 기은서(철학3) 학생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타본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비행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기체와 하네스를 연결하고 안전장치 확인을 끝낸 사람들은 바람을 맞으면서 기체를 조정해 공중에 띄운다. 이를 산개라고 하는데 지상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다음으로 허공을 향해 도약하면 바로 비행이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려면 지상에서 산개훈련, 낮은 언덕에 가서 전방이륙으로 이착륙 연습, 산에 올라가 비행연습, 후방이륙연습까지 한 후에야 비행할 수 있다. 여기에 패러글라이딩

은 실력이 늘어날수록 하늘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하면서 산과 바람을 배우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혼자 비행할 수 없다. 팬텀이라는 큰 기체에 전문가와 함께 타야 한다. 초보자가 유일하게 할 일은 비탈길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것. 허공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은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중력의 힘을 떨쳐 버릴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몰려온다. 땅과 맞닿은 발끝이 떨어지는 순간 몸 전체는 하늘의 공기로 가득하게 된다.

이륙 후에는 하네스에 편안히 앉아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비행을 즐긴다. 조종은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양손에 잡고 있는 조종줄을 당겨 비행 방향을 정한다. 방향 전환과 회전은 원하는 쪽의 조종줄만 당기면 된다.

올려다 본 하늘은 팽팽해진 기체위에 끝없이 높았으며 해발 450m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에메랄드 빛깔로 빛나고 있다. 이것이 자유일까. 기체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바람을 느낀다. 진정한 자유는 하늘에 있는 것인가 보다.

하늘을 나는 즐거움과 함께 주변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이 시원해진다. 땅에 닿지 못한 불안함은 패러글라이더의 안정감 있는 비행으로 금세 사라진다.

비행을 마친 배현아(전기공과) 학생은 "비행을 하면 나를 억누르는 스트레스는 하늘에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현재 대한항공협회의 대학 패러글라이딩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대학의 패러글라이딩 활동이 크게 축소되는 추세라고 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는 동국대, 한성대, 인하공업대학 정도다.

활공장과 착륙지점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팀이 나눠져서 대기한다. 바람소리에서는 비행자가 차키를 주머니에 넣은 채 비행을 하는 바람에 활공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해 콜택시를 불러서 착륙장으로 내려왔다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가 지루하다면 일상탈출!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늘에서의 자유를 만끽하며 상큼한 일탈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하늘을 향한 첫걸음 TIP!

하늘을 날고 싶은 당신, 당장 비행법을 배워 떠올라 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한 힘으로 바람을 가르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꼭 필요하다.

기초 교육에는 이론교육과 함께 이착륙교육, 중고도 비행 등이 구성되어 있다. 기초교육은 대부분 일주일 가량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더 빨리 비행을 체험하고 싶다면 간단한 교육 후 숙련된 조종사와 함께 비행을 하는 탠덤비행도 추천한다.

■ 기초 교육과정

교육기관	가격	교육기간	활공장	기타
송골매	50만원	8일	용인 정광산	
스카이	50만원	10일	용인 정광산	1년 중 최장일 지정 수강가능
조나단	35만원	4일	평창 해피700	6일 과정, 평일 6일 과정 있음
한국패러글라이딩 학교	32만원	7, 8일	용인 정광산, 경기도 광주 매주리	

■ 탠덤비행

교육기관	활공장	경유지	소요시간	
			비행시간	준비시간
송골매	용인 정광산		7만원	10~15분
			8만원	15분 이상
			12만원	25~30분
스카이	용인 정광산		7만원	10분 이내
			10만원	20분 이내
			13만원	30분 이내
한국패러글라이딩 학교	광주 매산리, 용인 정광산	주중 : 6만 5천원 주말 : 7만원		

■ 참고 정보

- 한국패러글라이딩학교 (www.korea-para.co.kr), 02-456-8228
- 스카이 (www.skypara.biz), 02-421-5284
- 에어필드 (www.airfield.kr), 02-3667-0117
- 조나단 패러글라이딩 스킨 (www.hp700.com), 02- 3472-1877
- 송골매 (www.songgolmae.co.kr), 02-532-9678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역사의 새로운 재미를 열어주는 '친절한 조선사' 저자 최형국 강연회

제7회 저자와의 대화

중앙도서관에서는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 저자의 사상과 텍스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인식을 고취하고 책 읽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행사명 : 제7회 <저자와의 대화>
2. 일 시 : 2008. 4. 12(토) 오후2:00~4:30
3. 장 소 : 중앙도서관 A/V실(2층)
4. 강연자 : <친절한 조선사>의 저자 최형국
5. 내 용 : 강연 및 사인회
6. 인 원 : 100명
7. 참가신청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결원시에만 현장접수 합니다.
8. 주 최 : 중앙도서관, 도서포털 리더스가이드
9. 후 원 : 도서출판 미루나무
10. 기타

* <작가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질문이 채택된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또 정시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해 책을 나눠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제1회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대상자 모집



올해부터 여러 세대 또는 여러 가족에 걸쳐 동국의 일원이 된 애당 가족을 "자랑스런 동국가족"으로 선정·시상함으로써 여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유익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오니 동국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상명 : "제1회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2. 시상지역 : 직계 3대 이상이거나 5명(부부, 형제, 자매, 자부, 사위 포함) 이상의 동문가족
3. 자랑스런 동국가족상 시상 : 시상일 : 2008. 5. 7(수) 개교기념식 행사 시 시상 예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08. 4. 1 ~ 4. 15
 - ▶ 발전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발전기금 홈페이지 접속)
 - ▶ 시상관련 문의 : 사업개발본부 대외협력실 ☎ 02-2260-3794

사업개발본부

주말마다 가까이서 부처님 만나는 기쁨

정각원 토요일법회

현직 불교대학 교수들이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현대불교의 세계적 흐름까지 불교에 대한 인목을 키워드리며, 수행자 스님들의 수행법과 살아있는 생활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즐겁고 향기로운 법회를 선사합니다.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장소 : 서울캠퍼스 정각원 법당 대상 : 일반인 및 동국 가족

월	일	주 제	강·법·사	비 고
4	5(토)	생활법회	해담 스님	광주 각회사 회주
	12(토)	반이사상의 성립과 전개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선체조의 심신수련	인도 스님	영산 금강사 주지
	26(토)	성지순례	김창균	예술대학 교수
5	3(토)	생활법회	영매 스님	동국대학교 이사장
	10(토)	내 인의 부처(여래장사상)	중호 스님	정각원장
	17(토)	인도불교의 역사	김미숙	불교대학 강사
	24(토)	진언수행의 이해	해정 정사	수원 유가심안당 주교
6	31(토)	불교와 문학	최승열	동국대학교 부총장
	7(토)	생활법회	심산 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14(토)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	계환 스님	불교대학 교수
	21(토)	성지순례	윤영수	기원문화박물관장
7	28(토)	법회/열반 사상의 이해	지창규	불교대학 교수
	5(토)	생활법회	현각 스님	원주 성불사 주지
	12(토)	중관사상의 구조	김성철	불교문화대학 교수
	19(토)	아미타 신앙의 이해	선봉 스님	음성 홍운사 주지
8	26(토)	불교와 경영	오영교	동국대학교 총장
	9(토)	생활법회	정안 스님	조계종 총회의원
	16(토)	법구경의 가르침	김재영	정보리회 지도법사
	23(토)	티벳불교의 역사	안성두	금강대학교 교수
30(토)	불교음악의 이해	능화 스님	태고종 문화부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1971년 새마을운동본부 후원 313호 TEL. 02-2260-3900 FAX. 02-2260-3944
홈페이지 http://jeongak.dongguk.edu